

# 북한, 코로나·제재·수해 '삼중고'

### 노동신문 "전쟁 못지 않은 시련" 함경남도 홍수 주택 1천여채 침수 자력갱생 의지...지원 어려울 듯

북한이 코로나19 사태와 대북제재 장기화, 폭우로 인한 수해까지 겹친 '삼중고'를 전쟁에 비유하는 상황이라고 비유하며 심각성을 부각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비상한 힘과 열정으로 격난을 부수며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해 용진도 용진해나가자' 제목의 1면 사설을 통해 "사상 초유의 세계적인 보건 위기와 장기적인 봉쇄,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곤란과 예로는 전쟁 상황에 못지않은 시련의 고비로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오늘"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난관"과 같은 표현을 동원하며 북한이 유례없이 힘든 상황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제7차 전국노병대회에서 코로나19와 대북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전쟁 상황에 못지 않은 시련"이라고 표현했다. 여기에 자연재해를 덧붙여 삼중고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달 초 함경남도에서 홍수가 발생해 주택 1170여 채가 침수되고 주민 50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작년에도 함경남도 소재 최대 광물생산자인 검덕지구가 태풍 피해를 입었고, 황해북도·강원도가 수해를 입는 등 자연재해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5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지시로 함경남도 당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공병부대와 주둔 군부대를 동원해 피해 복구에 나섰다. 북구용 자재는 국가 예비분을 쓰도록 했고 중앙에서 피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것도 명령했다.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에서 생산한 북구용 시멘트는 열차로 수송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을 찾지는 않았지만, 전화로 이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정남 함경남도 당책임비서는 신문의 별도기

사에서 "도의 피해상태를 놓고 너무도 당황하고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모대기고 있을 때 (김정은) 총비서 동지가 전화를 걸어 피해 정형을 하나하나 물어주고 친히 북구역량과 자체 보장대책까지 세워줬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은 이런 수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다. 신문은 "모든 당원과 근로자는 부딪친 난국을 맞받아 뚝고 자력으로 부흥하는 자국 변영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 나가야 한다"며 "무엇이든 제 손으로 만들어내고 제 땅에서 찾아내며 우리 식의 개발창조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논의하고 있고, 유엔과 유럽연합(EU)도 수해 지원 의사를 밝힌 상황이지만 북한이 자력갱생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수해 직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외부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확인한 바 있다. /연합뉴스



북한 함경남도 곳곳에 폭우가 이어지면서 주민 5천명이 긴급 대피하고 주택 1천170여채가 침수됐다고 조선중앙TV가 5일 보도했다. 이달 1~3일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 1만6천900여m와 다리 여러 곳이 파괴되고, 강·하천 제방 8천100여m도 수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북부 쿤두즈주 주도 쿤두즈 시내에서 주민들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과 정부군 간 교전으로 파괴된 상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탈레반, 아프카니스탄 5개주 주도 점령

### "미국 간섭하지 말라" 경고 점령지 무정부 사태 대혼돈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장반군 탈레반이 농촌지역에 이어 5개 주도를 점령한 뒤 미국은 간섭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9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탈레반 정치국 대변인은 "아프간 정부와 내부 휴전협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리는 미국의 아프간 내 간섭을 경고한다"고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미군과 국제동맹군이 철수하면서 탈레반은 5월부터 농촌 지역을 장악한 뒤 최근 주요 도시로 진군해 정부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다. 탈레반은 6일 아프간 남서부 남루즈주(州)의 주도(州都)인 자란즈를 점령했고, 이어서 7일에는 자우즈안주의 주도 세베르칸을 장악했다. 또, 8일에는 아프간 북부 쿤두즈주의 주도인 쿤두즈, 사르-에-폴주의 주도인 사르-에-폴, 타크하르주의 주도인 탈로칸

이 탈레반의 수중에 넘어갔다. 전통적으로 반(反)탈레반 세력이 강했던 북부 지역마저 차례로 탈레반에 함락됨에 따라 아프간은 혼돈으로 치달고 있다. 탈레반이 장악한 도시에서는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고, 무정부 상황 속에 약탈과 탈옥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집을 버리고 도시 밖으로 탈출하고, 아예 국경 너머 이웃 국가로 속속 넘어가고 있다.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관은 지난 7일 탈레반의 도시 침공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미 대사관은 성명에서 "아프간 도시들에 대한 탈레반의 공격을 비난한다"며 "탈레반은 자란즈 불법 점령과 세베르칸 공격에 이어 여러 지방 수도를 점령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간 국방부는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52가 세베르칸을 공습해 탈레반 조직원 2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미군도 "최근 아프간 정부군을 방어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위안부 피해자 공개증언 30주년 베를린서 "침묵 깨기는 계속돼야"

### 코리아협의회·국제단체 시위

"침묵 깨기는 계속돼야 합니다" 코리아협의회와 여성살해반대네트워크, 국제페미니스트연합은 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저항의 광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공개증언 30주년을 기념해 시위를 열고 이같이 외쳤다. 올해는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침묵을 깨고 첫 공개 증언을 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코리아협의회 위안부 실무그룹 소속 베트남인 응우옌 투는 "30년 전 김학순 할머니가 용기를 끌어모아 공개증언에 나선 이후 238명의 한국 여성이 '나도 김학순이다'라고 증언에 나서면서 기나긴 침묵이 깨졌다"면서 "이는 한국 뿐 아니라 북한,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티모르, 네덜란드까지 확산했다"고 소개

했다. 그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똑바로 사과하거나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안부 피해자의 이야기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호도하려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돼 침묵 깨기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위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자행한 성노예 범죄 피해자인 야지디족 마르발 알-알리코씨도 참석했다. 알-알리코씨는 IS로부터 당한 피해에 대해 공개증언을 할 활동가다. IS는 2014년 8월 이라크 신자르를 급습해 야지디족 남성 5천 명을 살해하고 여성 6천여 명을 납치해 성노예로 학대했다. 이날 시위에는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시위를 마치며 '평화, 책임'을 외쳤다. /연합뉴스

## 日스가 내각 지지율 28%로 ↓...출범 첫 30% 붕괴

###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 결과 60% "스가 연임하지 않았으면" 56% "올림픽 개최는 좋았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작년 9월 출범 후 처음으로 30% 밑으로 추락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395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스가 내각 지지율은 28%로 조사됐다고 9일 보도했다. 스가 내각 지지율이 일본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3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

에서 스가 내각 지지율은 31%로, 올림픽 기간 3%포인트 하락한 셈이다. 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2012.12~2020.9) 때의 아사히 여론조사 기준 최저 지지율(2020년 5월) 29%보다도 낮아졌다. 스가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도 직전 조사 때 49%에서 이번엔 53%로 4%포인트 상승했다.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스가 총리가 언급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가 '이뤄졌다'는 답변은 32%에 그쳤고, '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54%에 달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23%에 그쳤고, 부정적인 평가가 70%에 달했다. 스가 총리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66%에 이르렀다.

올해 9월 말로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스가 총리가 총재로 재선돼 총리를 계속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60%가 "계속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해서는 "좋았다"는 응답이 56%로 "좋지 않았다"는 응답 32%를 크게 상회했다. 올림픽 개막 전후 일본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도 스가 내각 지지율은 출범 후 최저치로 추락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가 지난달 23-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998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스가 내각 지지율은 34%로 6월 조사 대비 9%포인트나 급락한 바 있다. 지난달 17-18일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도 스가 내각 지지율은 35.9%로 출범 후 최저였다. /연합뉴스



**신축사옥 임대문의 환영**

※임대업종: 한방병원, 병의원, 커피숍, 초밥전문점 등

# 자산·공제 3,000억 달성 기념 경품 대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2020년 출자금  
**3.0%** 배당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담보대출 특판(100억)  
최대한다 **80%**  
최저이율 **3.5%**

대출상담 환영  
집단대출(중도금, 잔금)  
관리형 토지신락 사법비 대출  
전세(임차)자금 대출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총장지점 T:223-7217(충장로5가입구)